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의 사랑채와 안채간 연계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necting space between Sarang-Chae and An-Chae of □-shape Traditional Houses in Joseon Dynasty

천 열 홍* 신 응 주**
Cheon, Yeol Hong Shin, Woong Ju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connecting space of the '□' shaped houses from Chosun Dynasty, Korea. Houses are refl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shapes, locations and territoriality by the social class system. Because of their spatial arrangements, '□' shaped houses might have various planning approaches. This paper looks at Sarang-chaeh and An-chaeh, which are the common elements of the houses, and analyses thei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spatial arrangements and territoriality. The territoriality was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Chae and Madang. The spatial arrangement was formed by the social norms of its time. Hengrang-chaeh and Dam-jang, which were located in-between Chae and Madang, limit territoriality by providing privacy and interrupting the circulation.

키워드: □자형, 전통가옥, 사랑채, 안채, 연계공간

Key words: □Shape Type, Traditional Houses, Sarang-Chae, An-Chae, Connecting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가옥은 당시의 일상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남아 있는 전통가옥의 다수는 17세기 무렵부터 건축된 것으로, 유교적 신분질서인 조상숭배와 남녀유별 사상이 고착화되어 남성영역과 여성영역, 사당영역 등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자형 가옥은 인접한 배치로 인해 각 영역의 독립공간의 확보와 연결을 위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공간인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방법과 영역설정은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비롯해 이론고찰을 통하여 □자형 전통가옥의 유형 개념에 대하여 정립한 후, 채의 배치와 공간구성을 살펴보고 건축적 특징과 연계공간을 파악하고자 하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형 가옥의 계획 수법을 유추해 봄으로써 전통건축의 계획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가옥을 평면형

태에 따라 분류하여 □자형 또는 튼 □자형을 대상으로 배치 형식과 평면특징을 살펴보고 사랑채와 안채의 영역 연결과 분리를 위한 건축계획수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로 각 건축물의 평면을 바탕으로 두 영역간의 연계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조선시대 전통가옥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전통가옥의 채 구성과 평면을 살펴 □자 형태를 이루는 가옥을 선별하고 완전히 닫힌 형태인 □자형과 일부가 열려있는 형태인 트인 □자형으로 한정하였으며, 지정문화재 중 역사성과 학술적으로 중요도를 갖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대상을 파악한 후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62곳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와 도면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지 조사의 단계를 거쳤다. 문헌자료 수집은 시대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 등에 관한 연구물과 보고서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현지 조사는 문헌자료 및 도면자료의 수집이 완료된 후 대상 건축물에 대한 촬영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각 가옥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헌고찰에서는 □자형 가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 조선대 대학원 박사과정

**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wjshin@chosun.ac.kr

분석은 단행본, 보고서, 도면 등을 수집, 정리하여 자료로 삼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옥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사랑채와 안채간의 연계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면 및 사진을 분석하여 접근방식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고 영역간의 연결요소를 살펴보았다.

1.3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들은 □자형 가옥의 전반적인 구성을 이해하고 여러 대상을 선정하여 평면적 특징을 밝히는 부류의 연구와 유형분류를 통하여 빈도를 살펴본 연구로 분류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자형 가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1980년대 '□자형'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송인호 1982)를 시작으로 1990년대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1999)를 걸쳐 2000년대에 전통주택 안마당의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박진옥 2000) 및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김화봉, 김미나 2002),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주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신치후 2003) 등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Table 1. A Precedent study on a representative on □-shape on a house

연도	논문제목	연구자	연구대상
1982	'□자형'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송인호	경북-가옥 5호
1987	□자형 전통주거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문세영	전국-가옥 49호
1996	□자완전일체형 전통 살림집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여상진	경북-가옥30호
1999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김화봉	안동문화권-361호
2000	전통주택 안마당의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 : 충청지방의 □자형 중·상류주택을 중심으로	박진옥	충청-13호
2004	'연결형' 뜰집의 공간구성 유형의 특성	김화봉	안동문화권-21호
2010	안동문화권 □자형 뜰집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성	신치후	안동문화권-302호
2011	영동지역 □자형 주택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이용재	영동-30호

1990년대에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자형 가옥의 분포를 파악하고 각 가옥의 공간 및 평면을 살펴 공간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특히 □자형완전일체형 전통 살림집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여상진 1996)는 가옥의 규모 및 안채·사랑채의 배치에 따라 평면형의 유형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현존하는 □자형 가옥의 구성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1999)는 기존에 정립되지 않은 뜰집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그의 분류방식이 널리 적용되는데 일조하였다.

2000년대에는 특정 마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상세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가옥을 이루고 있는 안채 및 사랑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건물(채)과 다른 요소와의 관계,

특성 등을 연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양동마을 전통주택의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관계를 살핀 연구(김복태 1997)와 조선후기 가옥을 집중형, 결합형, 분산형으로 구분하여 사랑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윤일이 1999)도 주목된다.

가옥을 구성하는 채의 연결과 분리에 관한 논문은 2000년 이후 시작되었다.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 연구에서는 중·상류주택인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연결 및 분리를 위한 경계의식을 해석한 후 배치상에서 영역간의 물리적 경계구조를 도출하였고, 충청지역 가옥의 구성방식과 동선체계를 고찰한 후 각 채의 영역을 설정하여 경상도지역 가옥과 비교한 연구(박진옥 2000)도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자형 가옥의 평면적 특성과 각 채의 배치에 대한 주목할 만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 채 간의 관계는 영역설정과 경계구조로 치중되어 두 영역의 직·간접적 연결공간 및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자형 가옥의 배치

2.1 □자 가옥의 정의

□자형 가옥은 평면형식상으로 보았을 때 각 채들의 조합에 의해 □자 모양을 이룸으로써 안마당을 형성하고, 각 채들이 안마당을 둘러싸면서 안마당이 수직으로 열린 가옥을 의미한다. 즉, □자형 가옥은 건물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건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자형 가옥의 평면에 따른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자형 가옥에 대한 연구가 건축적으로 처음 진행된 것은 식민지의 기초자료를 조사했던 일본 학자들 곤와지로(今和次郎,1923), 이와쓰키(岩槻善之,1924), 후지시마가 이지로(藤島亥治郎,1924)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자형 가옥에 관한 용어는 '□字形', '□자 집'과 같이 '□字'형태를 중심으로 한 용어와 '뜰집', '파리집', '맞고패집'과 같은 가옥을 일컫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용어가 있다.

'뜰집'이란 용어는 장성준의 연구²⁾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으며, '뜰집'을 '주 건물의 평면이 □자 모양을 이룸으로써 건물의 안쪽에 뜰(안마당)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중규모 이상 주거의 살림채(본채)에 흔히 사용된다.'는 지역성을 갖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1)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1
 2) 장성준, 安東 土溪洞의 住宅類型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권 81호, 1978.4, pp.3-10

김화봉³⁾의 연구에서는 뜰집을 ‘조선시대에 건축된, 안동문화권(봉화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에 분포하는, 주거공간으로 둘러싸이거나 출입이 제한된 뜰을 갖는 세 채 이하로 구성된 뜰 □자형 및 □자형의 전통 와가’라고 밝혔다.

‘뜰리집’은 ‘경기도, 황해, 평안도 지방에 분포하는 뜰 □자형 혹은 □자형 주거’⁴⁾로 지칭하며,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 및 곡간, 헛간 등이 서로 만나 □자를 이루어 뜰리모양을 이룬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백유정⁵⁾의 연구에서 다룬 맞고패집은 고패집 두 개가 서로 마주한 뜰 □자형 배치를 이루는 가옥을 지칭한다. 고패집은 곱은자집, 기역자집 등으로 불리는 ㄱ자형 가옥을 지칭하는 방언이고 대체로 경기만지역과 충청권에서 통용되는 一자형 집에 부엌이나 외양간 따위가 직각으로 이어 붙여진 집을 일컫는다.

이러한 □자형 가옥의 명칭들은 평면형식상으로 □(미음)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각 지방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에 기인하여 명칭상 다소 차이를 보인다.

2.2 □자 가옥의 분포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자의 폐쇄적인 가옥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며, 전라도 지방에서도 □자 형태의 가옥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안동문화권에서는 총 302곳이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안동이 115곳(3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봉화가 49곳(16%), 영덕이 45곳(15%)으로 나타난다. 영양은 33곳(11%), 영주가 27곳(9%), 예천이 22곳(7%) 보이며, 청송이 8곳(3%), 의성이 3곳(1%)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안동은 조선시대에 안동문화권 8개의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주택의 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⁶⁾

연구대상의 위치를 파악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of houses on □-shape(%)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7(11)	6(10)	10(16)	33(53)	3(5)	2(3)	1(2)	62

2.2 □자 가옥의 채 구성

한국전통가옥의 구성 및 평면은 가족 구성원의 활동 및 사회적 상황에 근원하여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김화봉, 위의 논문, p.50

4)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pp.177-213

5) 백유정, 대문간 위치로 본 경기북부 맞고패집의 바깥채 공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 27권 제7호 통권273호, 대한건축학회, 2011.7, pp.113-121

6) 신치후, 안동문화권 □자형 주택의 평면형식의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24

가옥은 대지의 크기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쪽에 산을 두고 남쪽으로 마당을 두도록 자리잡고 주거의 중요한 안채와 사랑채가 남향 또는 동남향하도록 배치되었다.

안채와 안마당으로 형성되는 안채영역은 가정 안의 주부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내적 가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이 안쪽에 배치된다. 사랑채 및 사랑마당은 외부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며, 주인의 거실, 서재 및 접객공간으로 사용되고, 비교적 개방적이며 외부와 접촉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다음에는 대문과 행랑채 및 바깥마당으로 형성되어, 사역인들의 거처 또는 마구간,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배치된다.⁷⁾

Table 3. Composition of house on □-shape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안채	아래채	사랑	안사랑	행랑	곳간	문간	
화성정용채	○		○		○		○	
괴산김기음	○		○		○	○		
성준경가옥	○		○		○		○	
서백당	○		○			○		○
합천묘산목와고가	○		○		○	○		○
김상만가옥	○		○	○			○	
윤조루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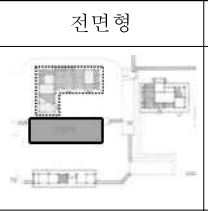

조사대상 전통가옥은 사랑채와 안채 및 중문간채, 행랑채 등이 안마당을 감싸 □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안채와 사랑채만으로 안마당을 감싸는 사례도 있다. 경기와 충북지역에서는 광채와 결합하여 □자 형태를 이루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에서는 사랑채와 안채만이 배치된 경우가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중문채가 함께 배치되어 □자형을 이루고 있다.

3. □자 가옥의 사랑채와 안채

3.1 사랑채

□자형 가옥에서 사랑채 위치는 안채의 안방과 대청을 기준으로 ‘측면형, 전면형, 모서리형’으로 나뉘는데, 집 규모와 생활행태에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사랑채 실구성은 방과 마루의 결합으로 정착된다.⁸⁾

Table 4. The type of the Sarang-chaе

측면형	전면형	모서리형
		
14곳	14곳	34곳

7)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2008, pp.479-480.

8) 윤일이,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75

측면형은 안채가 행랑채와 문간채 등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ㄱ자형의 평면에 사랑채가 부가된 형태이며, 그 좌·우측에 위치한다. 또한 사랑채와 안채가 접속되지 않게 배치되어 뒷마당으로 동선을 제공한다. 대상 가옥 중 14곳에서 나타나며, 그 사례는 양동마을의 4곳을 포함한 경북지역에서 5곳, 경기지역의 4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면형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위치한 형태로 대상 가옥 62곳 중 13곳에서 나타난다. 가옥의 배치가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가 일직선상의 축에 의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안채로의 동선은 사랑채의 측면 또는 후면에 위치한 중문을 통해 출입하고 사랑채가 전면에 구성되는 것은, 남성의 상대적 우위로 사랑채가 집을 대표하는 성격이 짙어짐을 의미한다.⁹⁾

모서리형은 사랑채가 분화되기 전 안채와 접속되어 있는 형태이며,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 등이 ㄱ자형을 이룬다. 사랑채가 안채의 일직선상 축에 벗어나 전면의 좌·우측면에 배치되고 안채와 직접 연결되거나 두 영역 사이에 행랑채를 두기도 한다. 사례는 32곳에서 나타나며, 그 중 20곳이 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충남, 충북, 경기지역에서 각 2곳씩 나타난다.

3.2 안채

대상가옥의 안채는 평면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형태에 따라 ㄱ자형, ㄷ자형, 一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ㄱ자형과 T자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ㄱ자형 안채는 화성 정용래가옥, 어재연장군생가, 함천묘산 묵와고가, 영동 규당고택, 음성 공산정고가, 단양 조자형가옥, 홍성 사암고택, 안동 오류현 등 62곳의 가옥 중 23곳에 나타난다. ㄷ자형 안채는 가장 많은 영구가옥, 남원 몽심재, 양동 낙선당, 율현동 물체당 등 가옥 29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 一자형 안채로 파악되는 가옥은 경남지역과 충남지역, 전북, 경북지역에서 나타나며, 함양 일두고택, 부여 민칠식가옥, 부안 김상만가옥, 영천 정용준씨이 나타나는 형태로, 수원광주이씨월곡택, 여주 김가옥 등으로 파악된다.

Table 5. The type of the An-chaе

ㄱ자형	ㄷ자형	一자형
		
23곳	25곳	14곳

ㄱ자형 안채는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중부지방에 분포된 형으로 ‘ㄱ자’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ㄱ자형’이라고 한다.¹⁰⁾ ㄱ자형으로 분류된 가옥의 분포는

경기 화성, 이천, 경남 합천, 충북 영동, 음성, 단양, 제원, 충남 아산, 홍성, 아산, 경북 양동, 안동, 예천이다. 전남, 전북지역에서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며, 충남과 충북지역에서 각 4곳의 분포를 보인다. 경북지역에서는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에서 5곳과 3곳이 분포하고 있으며, 양동마을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서백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ㄷ자형 안채는 안방, 대청, 건넌방이 위치한 중심부와 방과 아궁이 부엌 등으로 구성된 좌·우 측면의 날개부가 결합한 형태로, 이 유형은 대상 가옥 중 29곳에서 나타나며, 그 중 ㄱ자형 가옥이 15곳, ㅌ자형 가옥 14곳이다.

一자형 안채는 부엌과 방, 대청, 방이 일렬로 구성되는 형식으로 남부지방형¹¹⁾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은 대상 가옥 중 16%에서 나타나며, 사랑채와 안채가 병렬로 배치된 가옥에서 一자형 안채를 찾아볼 수 있다.

3.3 사랑채와 안채의 결합

사랑채와 안채를 특징에 따라 유형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ㄱ자형 가옥의 두 채 간의 결합방식을 고찰하였다.

사랑채가 측면형으로 분류된 유형은 14곳이었고, 이 중 6곳이 안채의 형태가 ㄱ자형이다. 一자형 사랑채와 ㄱ자형 안채, 중문간 또는 행랑채가 결합하여 트인 ㄱ자형을 이룬다. 안채가 ㄷ자형인 경우도 다수 나타나는데, 이때 一자형 사랑채와 결합하여 트인 ㄱ자형과 ㄱ자형을 이루며, 트인 형태는 경북지역, ㄱ자 형태는 전남지역과 충남지역에서 각각 1곳씩 나타난다.

사랑채가 전면형인 경우,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결합하여 트인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14곳 중 10곳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ㄷ자형 유형과 一자형 유형도 각각 4곳에서 나타난다.

사랑채가 모서리형으로 분류된 유형은 34곳이다. 이중 16곳이 트인 ㄱ자 형태이며, 안채 ㄷ자형과 ㄱ자형 사랑채가 결합한 유형이 4곳과 一자형 사랑채가 결합한 유형이 3곳에서 나타난다. 안채가 ㄱ자형인 경우는 一자형 사랑채와 결합한 경우가 3곳에서 나타난다. 안채가 一자형으로 분류된 유형은 ㄱ자 형태의 가옥에서 나타나며, 一자형 사랑채와 문간채 또는 행랑채와 결합한다.

4.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방식

ㄱ자형 전통가옥은 남녀의 공간이 분리되어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결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가옥을 살

9) 윤일이, 위의 논문, p.77

10)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p.410

11) 주남철은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를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형으로 분류함.

펴본 결과, 사랑채와 안채 간의 연계 구조는 마당, 문, 마루 등 세 가지 전이공간을 통해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 사랑채의 후면으로 난 문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이다. 사랑채와 안채는 안마당을 연계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시선에 노출되기 쉬워 다른 요소를 활용한 사례도 나타난다. 안마당은 안채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어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데, 전이공간을 안마당을 활용한 점은 안채로의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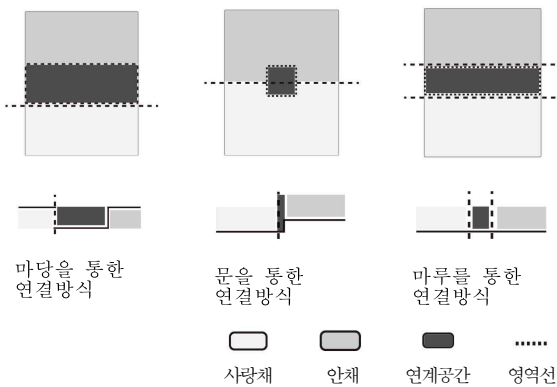


Figure 1. The connection of the Sarangchae and Anchae

둘째, 채와 채 사이 및 채와 담장 사이에 위치한 문을 통한 연결방식이다. 영역과 영역의 접점에 위치한 문은 폐쇄를 통하여 연계를 차단하고 이용자의 개방을 통해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출입을 조절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문은 사랑채영역과 안채영역을 분리 및 연결하는 장치로써 영역을 구성하는 마당 등의 요소를 거치게 되어 동선이 가장 긴 사례가 나타난다.

셋째, 사랑채와 안채가 인접되어 배치되거나 연결된 구조에서 영역의 분리와 연결의 문제를 마루로 해결한 방식이다. 뿔마루를 통하여 직접 연결되며, 마루라는 연계 공간을 통해 안채로 출입하게 되는 형식이다. 안채영역과 사랑채영역의 사이에 위치하며, 수장 및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안마당을 통한 연결형

전통주거에서 가장 강한 축을 갖는 것은 마당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안마당의 중심축을 기준으로하여 보면 하나의 중심띠를 갖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의 크기는 보통 3~5칸의 물리적인 치수로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내부의 마당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대청 뒤의 마당과 연결되는 그 결합성이 바로 마당이 갖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 축은 내부 공간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마당과 그 마당의 저 건너편까지를 함께 이어주는 강한 흡입력을 갖는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구성 원리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마당을 향한 외, 내향성의 특성 원리는 그대로 작용하면서 각방향이 갖는 공간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중앙의 안마당을 기준으로 하여, 동북으로 사당을 배치하고 사랑마당은 동남에 그리고 서북에 안채의 부속마당인 옆마당 등을 위치시킨다.¹²⁾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상 각 실들은 직접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채의 출입은 마당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당은 연결동의 역할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마당의 흠바닥은 평평한 땅이 되어야만 한다.¹³⁾

마당의 연계공간 역할은 형태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행랑마당은 주거 내부로의 출입과정상 외부에 면하는 표층(表層)으로서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 향하는 동선을 마당의 단부(端部)에서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다음 마당으로의 동적인 움직임은 강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띤 장방향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안마당은 여성들의 주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멈춤의 의미를 띤 정적인 정방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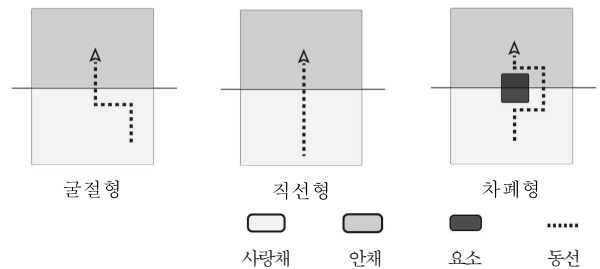


Figure 2. The kinds of connections through the yard

이 유형의 연계공간은 마당으로 굴절형, 직선형, 차폐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당을 통한 연결 방식 중 굴절형으로 파악되는 가옥은 19곳(61%)이고 차폐형이 9곳(29%)이며, 직선형은 3곳(10%)의 가옥에서 그 사례를 보인다. 경북지역에서는 18곳 중 12곳이 굴절형으로 파악되고, 차폐형이 5곳에서 나타난다. 직선형은 경기지역과 충북, 경북지역에서 각 1곳에서 나타나며, 경기지역은 세 유형이 1곳씩 균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에 위치한 대상 가옥에서는 굴절형 3곳과 차폐형 1곳, 4곳이 마당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충북지역의 대상가옥은 굴절형이 2곳, 직선형 1곳, 차폐형 1곳로 경기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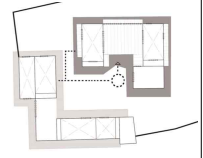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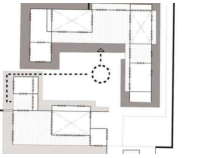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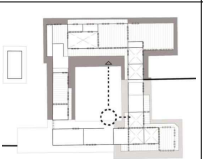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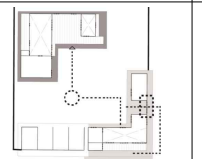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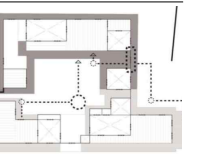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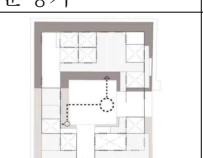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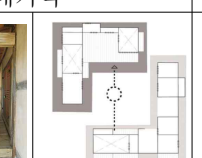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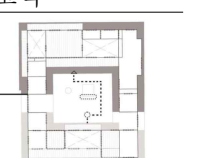
시기별로 살펴보면 15~17세기에는 직선형이 나타나지

12)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2), 건축사9612, 1996, p.90
 13) 이해연, 전통마당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6
 14) 이동찬, 시지각에 따른 조선중기 상류주거 외부공간의 구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재인용

않고 굴절형과 차폐형의 비율이 8:2이다. 18C에 들어 직선형 사례가 보이고 굴절형과 차폐형은 각각 58%, 25%로 파악된다. 19C에는 직선형이 36%로 비율이 높아지고 굴절형-직선형-차폐형 순서로 비율을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굴절형은 초기에 많이 활용되다가 점점 그 사

채 사이에 중문이 위치하고, 사랑채의 후면은 벽으로 처리되었다. 사랑채의 방을 반칸 돌출시킨 계획은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문을 후면에 바로 내지 않고 돌출부에 내어 안채로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고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6. The kinds of connections through the yard.

굴절형 연결						
	수원 광주이씨 월곡택		영천정용준씨가옥		달성삼가헌	
직선형 연결						
	단양조자형가옥		음성공산정고가		가일수곡고택	
차폐형 연결						
	어제연장군생가		제원정원태가옥		청도운강고택	
차폐형 연결						
	하회 북촌택		화성정용래가옥		세종 유계화 가옥	

례가 줄어들고 반대로 직선형은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차폐형은 20%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그 유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굴절형 연결

굴절형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 모서리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안채의 방향으로 난 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출입하게 된다. 안마당에서 안채로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꺾임을 갖는데, 꺾임을 통해 동선의 길이를 조절하고 안채로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회 남촌택¹⁵⁾은 -자형 안채와 모서리형 사랑채가 ㄱ자형을 이룬 유형이며,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사당과 별당채로 가는 동선으로 인해 두 공간이 분리된다. 사랑채의 책방에서 마당을 연계공간으로 활용하여 안채로 진입하게 되는데, 중문을 2칸으로 계획하여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안마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영천 정용준씨 가옥은 -자형 안채와 모서리형 사랑채, 문간채와 곳간채가 트인 ㄱ자형을 이룬다. 문간채와 사랑

가평리 계서당은 ㄷ자형 안채와 -자형 사랑채 및 중문간채, 사당채로 이루어진 ㄱ자형 가옥이다.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고, 사랑채 후면으로는 툇마루와 벽장을 좌우로 두어 안채로의 출입동선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며, 안채로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차면벽이 설치되어 있다.

가일수곡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었고, 사랑채는 분화하여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가 좌우로 위치하고 있다. 큰 사랑채는 큰사랑방과 대청마루, 책방으로 구성되며, 책방의 문이 안채방향으로 열린다. 큰 사랑채는 대청 후면의 사당방향으로 안채의 상방과 모방사이의 문을 이용하여 안채로의 출입한 것으로

보이며, 작은 사랑채는 마루방에서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출입하게 된다.

(2) 직선형 연결

직선형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배치되어 후면의 문을 통해 안마당을 거쳐 직접적으로 안채로의 동선을 갖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트 ㄱ자형의 주로 가옥에서 나타나며, 다른 유형보다 큰 안마당을 갖는다.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채의 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직사각형이며, 전이공

15) 1954년 화재로 몸채와 새사랑채가 소실되었고 현재 대문채와 별당채, 사당채만이 남아 있어 도면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음.

간이 마당인 유형 중 두 영역간의 거리가 가장 떨어져 있다. 청도 운강고택과 어재연장군생가, 제원 정원태가옥 등 세 곳으로 파악된다.

어재연장군생가는 사랑채와 안채, 광채가 ㅁ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사랑채 우측의 문간과 사랑채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내부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의 후면의 뒷마루를 통해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도 운강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중문채, 행랑채, 고방채가 ㅁ자 평면을 형성하고 있고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안마당의 크기가 상당하다. 사랑채는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으며, 고방채 측면의 방 후면에 벽장과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벽장의 크기에 비하여 뒷마루의 크기를 작게 계획하여 통로를 설치하였고, 이 통로를 통하여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3)차폐형 연결

차폐형은 안마당에 위치한 요소로 인해 안채의 시선이 차폐되면서 동선의 꺾임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동선이 굴절됨으로써 안마당의 직선길이보다 긴 동선을 갖게 되고 시선의 차폐로 인해 사랑채와 안채간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져 안채의 공간특성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회 북촌택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하여 ㅁ자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는 분화하여 중사랑채와 큰 사랑채로 나타난다. 사랑채 사이에는 중문간을 두어 안채로의 동선을 제공하고, 큰 사랑채와 안채가 맞닿는 부분에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 중간 사랑채는 집안의 주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전면에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후면으로는 벽장을 두었으며, 벽장 옆으로는 안채 방향으로 개방이 가능한 문이 시설되어 있다. 안마당에는 2개에 굴뚝과 장독대가 있고 안채의 대청에서 사랑채를 바라보았을 때 굴뚝과 벽장으로 인하여 후면의 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안채의 출입은 이 문을 활용했을 것으로 파악되며, 요소들과 배치를 고려했을 때 두 번의 꺾임을 갖게 된다. 시각적 차폐와 안마당의 요소를 통하여 안채로의 거리를 조절하여 안채의 공간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화성 정용래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트인 ㅁ자를 형성하고 있다. 안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한 대문을 통해 가옥으로 출입하며,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랑채 후면에 가림벽을 설치하였다. 가림벽으로 인해 안마당으로 출입시 한번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였다.

유계화가옥은 사랑채와 안채가 ㅁ자를 형성한다. 사랑채와 안채는 일직선의 축 선상에 배치되어 사랑채 후면으로 나올 경우 안채가 바로 보이게 된다. 이 점을 수목을 통하여 시선을 차단하고 안채로의 출입 동선을 꺾이게 한 점은 동선이 갖는 거리를 조절하여 안채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4.2 문을 통한 연결형

문은 드나들기 위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과정적 공간으로써 목적영역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을 통한 연결은 협문과 중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협문은 외부로부터 가옥의 영역을 한정하는 담장과 결부하여 설치됨으로써 가옥 외부로의 동선을 제공한다. 중문은 각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개방적 공간인 사랑채에서 폐쇄적 공간인 안채로의 동선을 제공하는 일종의 과정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을 살펴보면 협문을 통하여 출입할 시 동선상의 거리가 짧게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 가장 긴 동선을 갖기도 한다.

대상가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경기와 충북지역에서 각 1곳이고, 충남과 전라도 지역이 2곳, 경북지역 8곳으로 24곳 중 14곳이 협문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가옥 중 경남과 전라도에 위치한 가옥은 각 3곳이며, 경남지역에서는 중문을 활용한 가옥의 2곳, 전라도 지역은 협문을 통해 안채로 출입한 가옥이 2곳으로 이 지역의 대상가옥은 문을 활용한 가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문을 통해 안채로 출입한 가옥은 충북과 전라도에 위치한 가옥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각 4곳과 3곳에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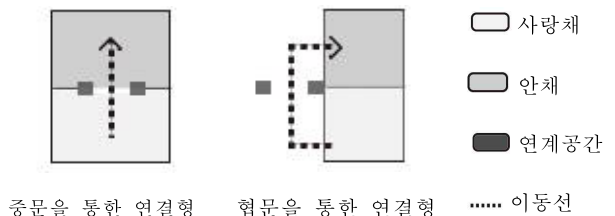


Figure 3. The kinds of connections by the door

협문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북지역에서는 예천권씨 초간종택이 1589년에 건립되어 가장 이르고 괴산에 위치한 김기웅가옥이 1910년경으로 가장 늦다.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경북지역이 건립시기가 앞서 있고 충남과 전남지역이 그 뒤를 따른다. 구례 운조루는 1766년경 건립되었으며, 경북의 가옥 중 가장 늦게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취당과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경북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을 활용한 가옥은 17C부터 19C 중·후반에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는 신분제의 동요와 농업의 발달로 인해 부농주거와 서민주거가 발달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써 가옥 내 곳간의 크기가 증가하고 마당의 역할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영향보다는 생활의 특성에 맞는 배치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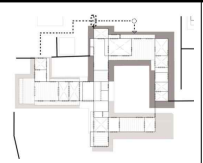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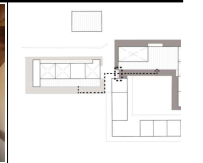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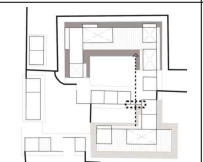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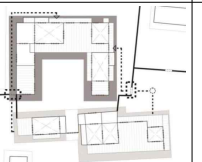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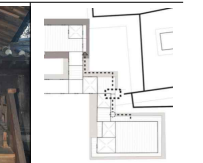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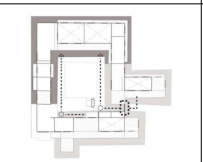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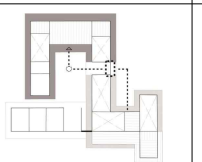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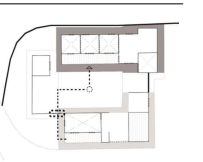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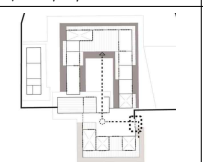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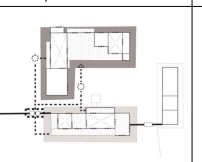


(1) 협문을 통한 연결

구례 운조루는 안채와 중사랑채가 결합하여 口자를 이루고 있으며, 큰사랑채가 안채의 좌측으로 덧붙여있는 형태이다. 대문에서 안채로의 출입은 안채와 중사랑채,

안마당으로의 동선이고, 우측은 일각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일각문을 통해 안채의 건너방 또는 마루방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명재고택은 사랑채후면에서 1차 연결요소인 협문을 두

Table 7. The kinds of connections by the door

협문을 통한 연결						
	구례운조루		논산명재고택		진접여경구가옥	
						
괴산 김기웅가옥		영천만취당		예천권씨 초간종택		
중문을 통한 연결						
	여주 김영구 가옥		해저만회고택		예산정동호가옥	
						
아산 성준경 가옥		홍성 사운고택		합천묘산묵와고가		

큰사랑채가 인접하는 부분에 위치한 중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채의 전면은 중사랑채가 위치하여 안마당을 감싸고 있고, 후면으로는 담장을 통해 뒷마당을 형성한다. 안채의 동익랑과 중사랑채가 만나는 부분에는 샛문이 설치되어 안주인의 비밀스러운 통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나무청이 있는 큰사랑채 뒤편을 이용하여 안채의 후면으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랑채 뒤편으로 출입시 책방 우측의 담장이 1차적으로 시선을 차폐하고, 우물 옆 담장이 안채로의 시선을 차단한다. 담장과 협문이 안채 뒷마당을 차폐하여 안채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운조루의 동선은 담장과 협문을 통해 안채에 이르는 3중구조로 볼 수 있다.

충남 명재고택은 안채와 대문채가 ㄷ자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채는 대문채의 우측면에 접속되어 있다. 안채로의 출입은 대문채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문채에서

는 차면벽을 통해서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사랑채 후면에 위치한 협문을 통해 된다. 사랑채 후면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협문을 통해 안채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안채의 우익랑이 시선을 차폐한다. 지면에는 배수로가 있어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며, 안채의 우익랑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의 동선이 나누어지게 된다. 좌측은

고 건물의 배치를 통해 안마당을 차폐한다. 2차 연결요소 일각문을 통해 안채로의 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 중문을 통한 연결

영천 매산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중문간채,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문간과 사랑채 사이 및 안채와 사랑채가 인접한 부분에 중문이 위치하고 있다. 중문의 위치로 볼 때 각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고안된 설계방법으로 볼 수 있다.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고 우측면의 문을 통해 후면으로 돌아서 중문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여주 김영구 가옥은 사랑채가 분화한 형태로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에 자리잡고 있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는 전후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중문을 시설하여 안채로의 동선을 제공한다. 큰 사랑채 후면에는 차면벽을 설치하여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한다. 이 곳 또한 안채로 연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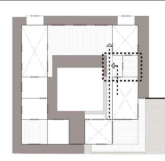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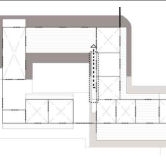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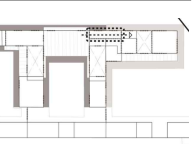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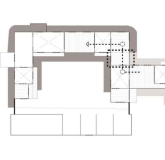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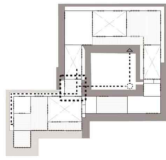


해저만회고택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고 안채 전면의 중앙에 위치한 중문을 통해 안채로 이르게 된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가 인접한 곳에 중문이 시설되어 있으며, 사랑채의 마루방 후면으로 나와서

중문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홍동고성이씨 탐동과종택은 卍자형 안채에 사랑채가 덧달려 있는 형태이다. 출입의 경우 사랑채는 마루방의

약종택의 경우 뒷마루를 통해 마루방을 거치게 되는 복합형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Form a connection through floor

마루						
	양동서백당		송석헌		화성정용채가옥	
마루방						
	양동사호당고택		궁집		예천의성김씨남약종택	

후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안채는 전면에 시설된 중문을 통하여 출입한다. 사랑채와 안채는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건립되어 있으며, 안채의 좌측면 방과 부엌사이에 시설된 중문이 사랑채에서 안마당으로 출입할 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4.3 마루를 통한 연결형

마루는 인접하는 공간에 따라 성격이 규정된다. 대상가옥을 살펴본 결과 사랑채와 안채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공간의 성격이 아닌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채 방향으로 문이 시설되어 연결공간의 역할도 한다. 방과 방 사이에 위치한 경우 방과 방을 연결하게 되고, 뒷마루가 연결되지 않는 가옥에서는 안마당으로의 문을 개방할 수 있어 출입시 이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뒷마루가 연결된 경우 높이차이로 인하여 뒷마루 중간부분에 계단이 설치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안채의 높이에 맞춰 사랑채까지 오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 경우 사랑채의 방 내부에 계단을 두어 마루에 출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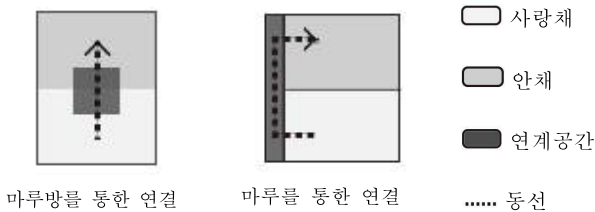


Figure 4. Form a connection through floor

마루를 통한 연결형은 총 7곳으로 파악되며, 그 중 경북이 4곳, 경기 1곳, 충청지역 1곳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궁집을 제외한 대상가옥은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뒷마루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이 3곳이다. 마루방을 거쳐 안채로 출입한 가옥 또한 3곳에서 보이고 예천의성김씨남

(1)마루를 통한 연결

양동 서백당은 사랑채와 안채가 결합하여 卍자 평면을 이루는 가옥으로, 사랑채는 전면 우측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로의 출입은 전면 중앙에 위치한 중문간을 통 서 출입한다. 사랑채는 중사랑방과 큰사랑방, 사랑마루 등으로 구성되며 큰사랑방 후면에 반침이 설치되어 있고 반침 옆으로 작은 문이 있다. 이 문을 통해 안채 대청과 연결된 쪽마루를 이용하여 안채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사랑방과 산실청 사이에 위치한 마루방을 통해 안채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화성정용채가옥은 사랑채와 안채가 남북으로 직렬 배치된 형태이다. 동쪽으로 길게 배치된 행랑채로 인하여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한정하고 있으며, 문간채를 통해 사랑영역으로 출입하게 된다. 안채로의 동선은 동쪽으로 치우쳐 배치된 중문을 통하여 안마당으로 이르게 되며, 사랑채에서는 사랑방에서 안채의 건너방 뒤편으로 설치된 통로를 통하여 대청으로 바로 출입하게 된다.

(2)마루방을 통한 연결

양동 사호당 고택은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면에 덧붙여져 있는 배치형태이며, 전면에는 대문채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우측의 방 사이에는 마루방이 위치하여 두 영역의 연결과 분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랑채에서 마루방을 통해 안마당과 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남양주 궁집은 卍자형 안채에 사랑채가 덧달려 있는 형태로 사랑방 후면으로는 마루방이 자리잡고 있다. 마루방은 사랑방과 안채의 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안마당으로도 문이 개방되어 안채의 영역으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된다. 사랑방에서 마루방으로 출입한 후 안마당을 통해 안채와 연계된다.

영동 규당고택은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이 결합하여 卍자형 안채를 이루고 있으며, 영역이 맞는 부분에 마

루방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우측면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부에 마루방에 돌출되어 툇마루와 연결된다. 마루방은 툇마루와 방, 마당으로 창호가 설치되어 사랑채에서 마루방을 거쳐 툇마루나 방, 대청으로 연결된다.

양동 사호당 고택은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면에 덧붙여져 있는 배치형태이며, 전면에는 대문채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우측의 방 사이에는 마루방이 위치하여 두 영역의 연결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랑채와 안채가 인접한 口자 형태를 갖는 가옥을 대상으로 성격이 다른 영역의 동선체계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가옥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치 및 구성을 살펴본 후 배치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영역의 성격이 대비되는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가옥의 건축적 특징으로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건립된 가옥들이 주를 이루고 가옥의 채 구성은 중심건물인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사당채로 이루어진다. 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사당채로 구성되는 가옥의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사당채가 없이 구성된 가옥도 다수의 사례를 보인다. 행랑채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의 공간인 안채 사이에 위치하여 전이공간의 역할을 하며, 기능적으로는 두 채를 단절하고 있다. 대상 가옥의 마당과 담장을 살펴보면 채의 구성에 따라 마당이 형성되고, 마당을 통해 채를 묶어주기도 한다. 담장의 기능은 영역을 한정해주고 시선의 차폐,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랑채는 안방과 대청을 기준으로 한 측면형, 전면형, 모서리형으로 분류하였다. 측면형은 안채와의 거리가 가깝고 출입도 용이하여 경계가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채는 평면형태에 따라 口자형, ㄷ자형, 一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ㄷ자형인 4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고찰한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은 중간의 전이공간을 매개로 하는데 마당, 협문, 마루를 활용되었으며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을 통한 연결방식으로 안마당은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등으로 둘러 싸여 그 영역을 한정하고, 각실의 출입은 마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안마당을 통한 연결은 굴절형과 직선형, 차폐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굴절형이 전체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차폐형은 차면벽, 안채의 좌우익랑의 벽면, 수목, 담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랑채 뒤편의 문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로 안채의 시각적 노출이 발생되나 가장 짧은 동선을 갖는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협문을 통한 연결방식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영역과 영역의 점점에 위치하여 유형 중 가장 긴 동선의 사례가 나타난다. 문을 개폐할 수 있으며, 평상시 문을 잠궈둠으로써 안채의 폐쇄성을 강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마루를 통한 연결방식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완벽하게 연결된 구조로서 거리상 가까워진 두 영역을 문,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분화되기 전인 가옥에서 사례를 갖는 것으로 보아 내외법을 시작한 조선초기의 건물과 내외법의 영향에 따라 사랑채의 독립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조선 중기의 건물에서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조선시대 口자형 전통가옥에서 사랑채와 안채간의 동선은 전이공간에 따라 분류하여볼 수 있으며, 이는 시대적 양상이 아닌 건축물의 영조시각 채의 배치방법과 증축, 가옥의 규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선은 가옥내부의 담장과 벽, 수목 등의 요소에 의해 거리가 조절되며, 시각적 개방과 차폐를 이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P.87
2.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1
3. 장성준, 安東 土溪洞의 住宅類型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81호, 1978.4, pp.3-10
4. 백유정, 대문간 위치로 본 경기북부 맞고래집의 바깥채 공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 27권 제7호 통권273호, 대한건축학회, 2011.7, pp.113-121
5.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p.75
6. 신치후, 안동문화권 口자형 주택의 평면형식의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24
7. 윤일이,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57-66
8. 이희준, 전통회화속에 나타난 자연관과 조영양식, 환경과 조경 9709, 제인용
9. 오채준, 경북 영덕군 월구리 마을의 전통주택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73
10.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2), 건축사9612, 1996, p.90
11. 이해연, 전통마당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6
12. 이동찬, 시지각에 따른 조선중기 상류주거 외부공간의 구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제인용
13.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1~37

접수일자 : 2015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자 : 2015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8월 22일